

◀ ‘대부도주민 절반이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태’(상)

대부도 주민 5,500세대 중 3,000여 세대는 아직도 지하수 먹고 있다

대부도 주민 모두가 수돗물을 먹게 되는 그날을 위해 ‘대부도저널’이 앞으로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대부도주민 절반이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태’를 집중 제시한다.

두 번째는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를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도 주민 중 절반이 넘는 세대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부도 주민 5,500세대 중 56%에 이르는 3,000여 세대가 아직도 수돗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안산시민은 많지 않다.

2025년도 현재 대부도의 현실이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세대는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식당 및 펜션 등에서도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립과정에서 다량의 폐기

물과 뽕흙 등을 매립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민법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

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수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안산시는 대부도 주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7월 14일까지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주민 열람 진행



안산시는 이달 14일까지 대부동 지역 성장관리계획의 운영상 개선 사항과 세부 기준 정비를 위한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 사진은 대부해솔길 1코스 끝지점과 2코스 시작점이 만나는 해안로 24시횃집이 있는 부근을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이다. <사진제공=안산시>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운영상 개선 사항과 세부 기준 정비를 위해

안산시는 이달 14일까지 대부동 지역 성장관리계획의 운영상 개선 사항과 세부 기준 정비를 위한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

시는 대부동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난 1월 대부동 녹지지역 내 23개소, 총 9,712,77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와 용어를 주로 정비했다.

우선, 전면공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고 전면공지 조성 예외 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전면공지 확보 및 조성 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인 ‘개발규모 2,500㎡ 이상으로서 진입도로를 연장 35m 이상 개설하는 경우’ 대상 기준을 폐지해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건축물 형태(지붕)에 관

한 계획 준수’ 인센티브 적용 기준 완화 ▲‘도로 기부채납’ 인센티브 비율 상향 ▲‘도로확보 인센티브’ 적용 기준 추가 명시 ▲단독주택의 권장 지붕형태인 ‘경사지붕’의 범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기준 완화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문구·용어의 정비 등을 담았다.

이번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과 함께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윤성용 기자

市,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7일 개최

공업지역 체계적 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안산시는 오는 17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 중인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환경과의 조화를 도

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준공업지역 7개소와 일반공업지역 1개소 등 총 8개 지역(0.426㎢)을 대상으로 한다.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는 ▲목표 및 전략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 ▲공업지역 유형 분류 ▲지원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및 밀도 관리 방향 ▲환경관리 방안 ▲정비구역 지정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청회에서는 계획 수립 배경과 주

요 내용을 설명하고, 도시계획 및 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 이후에도 오는 7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계획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대부도저널 직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편집국 기자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대학(2.3년) 졸업 이상 기 타 : 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광고/사업국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고졸이상 기 타 : 1.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2.차량소지자 우대
영상제작편집국	0명	경력사항 : 경력자(영상 제작 편집 가능자) 학력사항 : 학력 무관 기 타 : 유튜브 제작 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지원부문 명기)

○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 대 우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연봉 협의 후 결정

○ 서류제출 : E-mail dj250407@naver.com

※ 직접 내방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부도저널(주) 총무국 ☎ 032-880-9994

안산시 ‘러브버그’ 출몰 대비한 친환경 예방·홍보 병행 추진

현재까지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10여 건 그쳐

안산시는 최근 확산하는 돌발성 곤충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발생에 대비해 친환경 예방 대책과 시민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러브버그는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개체수가 늘면서 수도권지역에 대량 출몰하고 있다. 초여름과 가을철 기온 상승과 장마철 습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번식환경이 적합해진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러브버그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생태계 내 유익한 기능을 하는 익충이지만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10여 건이다. 이에 시는 시민의 불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예방조치를 추진한

다. 특히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을 하지 않는 대신 친환경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야간 조명 최소화 ▲방충망 틈새 점검·보완 ▲물 분무기로 제거 ▲외출 시 어두운 색상의 옷 착용 등 일상 속 예방조치를 보건소 누리집과 SNS, 방송 자막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예기치 않은 대거 출몰 시 친환경 살수 분무 방역으로 생태계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의 방제를 시행한다. 주민 자율 방제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아직까지 안산에는 러브버그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지 않지만, 대거 출몰에 대비 친환경 방제 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시는 최근 확산하는 돌발성 곤충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발생에 대비해 친환경 예방 대책과 시민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희재 기자

안산시-고려대-KT, AX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착수

인공지능 전환



안산시는 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KT와 함께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선화 기자

안산시는 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KT와 함께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은 조직이나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꾀하는 전환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

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업무협약식 개최

근 고려대 융합연구원장, 김몽룡 KT 서부법인고객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협약 체결의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고, 각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안산시가 추진 중인 AI 기반 스마트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행정 혁신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 전반에 걸쳐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발 ▲예산 효율화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하는 데 공동으로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과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

게 된다. 고려대는 ▲정책연구 기획 ▲사업모델 설계 ▲기술 자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KT는 ▲AI·빅데이터 기반 프로젝트 발굴 ▲기술 지원 ▲공모사업 컨소시엄 구성 ▲정보교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산시가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행정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AI 기반 스마트행정 실현을 위한 청사진 수립, 데이터 기반 실증 프로젝트 확대, 행정 업무의 자동화·지능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市, 시민기자단·시민DJ 합동 워크숍 개최

2일 엠블던호텔에서 진행

안산시는 2일 엠블던호텔에서 안산시 시민기자단 및 시민DJ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시에서 위촉한 제7기 안산시 SNS 시민기자단과 시정소식지 명예기자, 시민DJ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직 사진작가인 주용철 강사는 시민기자단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팁을 강의하고, OBS 라디오 DJ로 활동 중인 서린은 시민DJ들에게 라디오 진행 실전 팁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이민근 시장이 시의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직접 설명하며 행사를 빛냈다. 이날 이 시장은 ‘담대한 미래를 위한 담대한 변화와 혁신, Rise of ANSAN’이라는 주제로 시의 과거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민선 8기의 시청

정책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대형화물주차장 조성 ▲로봇지역센터 구축 ▲경기경제자유구역 사동(ASV) 지정 추진 등 안산시 역점 사업들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밝히며 시민기자단과 시민DJ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민근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시민이 모르면 의미가 없다”며“안산시의 비전과 가치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기자단과 시민DJ 여러분들이 시민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X(구 트위터) 등 총 7개 시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32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다. 시민기자단 및 시민DJ의 활동은 시 공식 SNS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는 2일 엠블던호텔에서 안산시 시민기자단 및 시민DJ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4세 청년 대상 오는 8월11일부터 접수

안산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24세 청년 대상 오는 8월11일부터 접수

안산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24세 청년 대상 오는 8월11일부터 접수

안산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24세 청년 대상 오는 8월11일부터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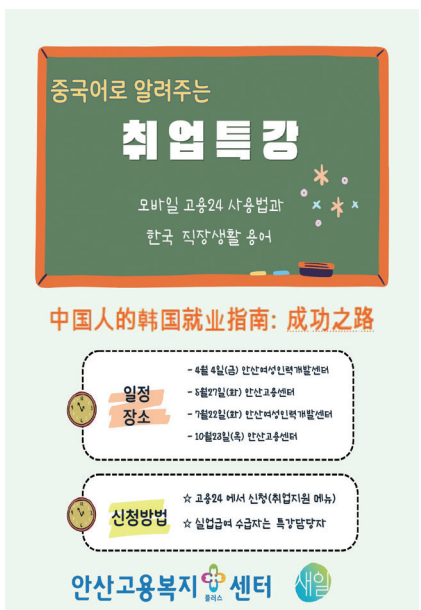
안산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24세 청년 대상 오는 8월11일부터 접수

못한 경우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1일 출생자는 2025년 1분기와 2분기 연령 기준일에 각각 24세에 해당하므로, 신청일 현재 및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해당 분기에 대해 소급 지급된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고용복지+센터 안산여성새일센터와 협업 진행



안산고용복지+센터가 안산여성새일센터와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중국어로 알려주는 모바일 고용24 사용법과 직장생활 용어』 특강을 개설하고 참여자 모집 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취업이 성큼! 중국어로 알려주는 모바일 고용24 사용법과 직장생활 용어

안산고용복지+센터가 안산여성새일센터와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중국어로 알려주는 모바일 고용24 사용법과 직장생활 용어』 특강을 개설하고 참여자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복지+센터(소장 홍성지)는 외국인 구직자들의 취업과 직장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어로 알려주는 모바일 고용24 사용법과 직장생활 용어』 취업 특강을 개설했다.

이 취업 특강은 안산여성새일센터에서 근무하는 중국 하얼빈 출신의 직업상담사가 모든 과정을 중국어로 모바일 고용24 사용 방법과 한국 직

장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직장 생활 용어를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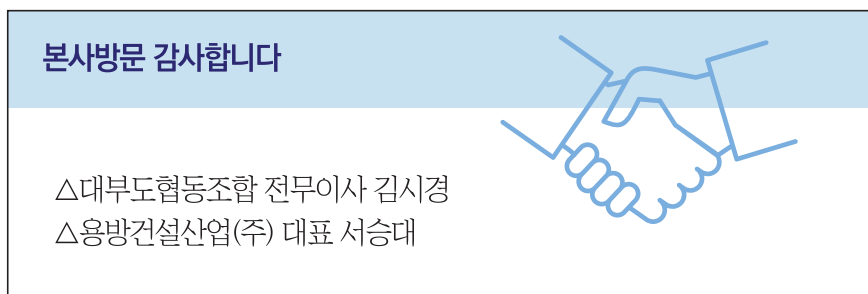
올해 이미 2번 특강이 개최되어 36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들은 “취업에 자신감이 생겼다”, “중국어로 설명해 주어 이해가 잘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7.22(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10.23(목) 안산고용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으로, ▲참여신청은 고용24(취업지원→구직역량강화프

로그램→중부청·안산고용센터 선택)에서 하면 되고, 실업급여수급자는 특강 담당자(031-412-6901)에게 접수하면 된다.

홍성지 안산고용복지+센터 소장은 “중국어 취업특강을 통해 취업 정보 수집 역량을 키우고, 한국의 직장생활 용어를 알려주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대부도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시경
△용방건설산업(주) 대표 서승대

양문석 민주당 의원, 프레스센터 청소 노동자 만나 현안 청취

“원청인 한국언론재단이 청소 노동자 처우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 지하 3층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프레스센터분회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문석 의원은 “청소 노동자들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용역사가 바뀌 때마다 임금과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아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원청,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책임을 지고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프레스센터 청소 노동자들은 원청사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한 용역사 (㈜경기교육 소속으로, 현재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

히, 청소 용역사 교체 때마다 임금과 복리후생 등 기존 협약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매년 노동조건이 후퇴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2025년도 청소 용역사인 (주)경기교육은 기존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고, 복리후생기금 일부 지급 거부와 연차 축진 금지 조항 폐지 등을 요구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이 상황에 대해 “연차 5일 사용축진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고, 복리후생기금 축소는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프레스센터 청소 노동자들은 용역사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승계되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원청이 교섭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용역 변경 시에도 노동조건이 승계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악한 휴게 공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지하 3층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프레스센터분회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냉·난방기, 환기 시설, 편의시설 지원 등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원청사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용역계약 시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프레스센터분회의 임금협

약과 단체협약을 용역사가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진행하고, 용역사인 (주)경기교육이 기존에 현장에서 운영되던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기환 도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27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27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복합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을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주관하고,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해 지난 3월 착수한 연구의 마무리를 알리는 자리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모델 설계,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겼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향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제도화 연결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 정담회’

같은 날 ‘추모의 날’ 조례 통과 선감학원 추모의 날 지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사진)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평화아카데미, 수원여성회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155구 유해의 안치 장소와 선감학원 옛터 조성 방향, 지역사회의 소통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유해는 인근 공설묘지로 이장될 예정이지만, 시민사회는 상징적인 추모 공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7~2028년 착공을 목표로 역사·문화 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인권교육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은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리고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선감학원의 진실을 기억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안산시의회, 연이은 市·산하기관 수사에 공직기강 확립 ‘촉구’

박태순 의장 “유사 사례가 재발 않도록 市의 다각적인 노력 필요하다” 당부 한마디

안산시의회가 최근 안산시 공무원과 시 산하 보조 단체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시민들의 우려가 높으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의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회는 폐회사에서 최근 안산시 공무원과 산하·보조 단체 간부들의 비위 혐의가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로 공공기관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시가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제도 정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평가 지표 개선과 청렴 리더십 강화 그리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써 주길 당부하며 시민 우려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태순 의장은 “최근 연이은 발생한 시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수사 상황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시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의회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번 폐회사를 통해 의원 해의출장에 대한 입장에 설명했다.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 조사



안산시의회가 지난 3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시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에서의 박태순 의장의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결과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의 국외 출장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시 감사 청구 및 조치 완료에 이어 관련 수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 또한 소상히 알려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 본격가동

사회적 통합 연구용역 1일 착수보고회 개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소속 황은화, 유재수, 송바우나, 선현우 의원을 비롯하여 안산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안산시는 118개국 10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다문화 도시로 2020년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가입했으며 올해 4월에는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바 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안산이 기존의 다문화 도시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위해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으로 ▲상호문화도시의 개념 및 정책 현황 조사와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실천사례 분석 ▲상호문화 인식 조사 및 심층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안산시 사회통합 전략 및 추진 과제 발굴 등을 설정했다. 특히 선주민과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모임, 단체, 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고려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언어, 사회 적응, 심리·건강, 소통·교류, 일자리 등 핵심 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용역을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생하는 안산형 사회통합 모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을 발굴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대상 상호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및 참여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고회를 주재한 황은화 대표의원은 “오는 10월말까지 현장 중심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과제를 심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해 안산시가 ‘샐러드 보울’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구봉도와 함께하는 문화공연, 가수 주병선 ‘칠갑산’ 떴창

6월 29일 구봉도광장
버스킹무대에서 펼쳐져

‘2025 구봉도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6월 29일 일요일 구봉도광장 버스킹무대에서 버스킹공연으로 펼쳐졌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바람이 솔솔부는 시원한 바닷가 구봉도에서 펼쳐진 이날 문화공연에는 500여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다녀갔다.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계속된 공연을 지켜보는 관광객들은 나무그늘 아래 자신들의 돛자리를 깔고 앉아 구경하기도 하고 좌회측에서 마련한 천막아래 의자에 앉아 구경하는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이날 공연은 구봉도상가변영회(회장 김학운)가 주관하고 안산시가 후원했다.

원했다.

대부도가 낳은 가수 김장식의 인생 열차가 무대를 올릴 때는 김장식 팬카페 회원들이 무대앞으로 나와 ‘짱짱 짱 김장식’, ‘인생열차 김장식’ 등이 새겨진 작은 손피켓을 흔들기도 했다. ‘해피준의 별루쇼 익스티림’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마음으로 무대 주위에 있던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선물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문화공연의 피날레는 칠갑산으로 유명한 가수 주병선의 ‘칠갑산’ 떴창이었다. 주병선이 칠갑산을 부를 때 7080세대들은 모두가 칠갑산을 떴창했다. 오랜만에 구봉도에서 주어진 버스킹공연은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6월을 마무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2025 구봉도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6월 29일 일요일 구봉도광장 버스킹무대에서 버스킹공연으로 펼쳐진 가운데 가수 주병선이 ‘칠갑산’을 부르자 관광객이 떴창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市,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공모 선정... 국비 6천만 원 확보

대부북동 방아머리해변을
중심으로 집중 자원 계획

안산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에서 소음대책 마련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안산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포함되는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해변을 중심으로 ‘방아머리해변 친환경 놀이터’와 ‘방아머리해변 워터 서바이벌체험’을 운영(주민지원 공모사업)해 관광객 유치와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 지원에 나선다.

‘방아머리해변 친환경 놀이터’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방아머리해변에서 바다와 선셋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꾸며진다. 가족 단위 관광객과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워터 서바이벌체험’을 통해 해변에서의 특별한 액티비티 체험과 힐링을 선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대부도 방아머리 선셋 콘서트’와 연계해 대부도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부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방아머리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놀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안산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마을어장 내
해루질(수산물포획·채취) 금지

“이 지역은 만조 시 해수가 잠기는 곳으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수산업법 제106조에 따라 불법 행위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안산시·어촌계·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낙조전망대로 유명한 종현어촌계(계장 김부열) 사무실 앞에 내걸린 해루질 금지 표지판이다.

수산업법 제106조(벌칙) 규정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산업법 제63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업법 제106조는 벌칙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내릴 수도 있는 병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해양본부
공용주차장
운전연습 금지

“공용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운전학원 차량 및 개인의 운전연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민원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

최근 대부해양본부 건물 앞 공용주차장에 내걸린 현수막이다.

이 공용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단원구청 도로교통과는 이곳에서 평일에 A자동차학원 연습차량들이 차량을 출발시키고 있고 주차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고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주말에는 일반인이 이곳 공용주차장에서 주차연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고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선정을 통해 그간 구축된 인프라를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익 모델’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대부북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아우르는 성공적인 주민주도 도시재생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구봉도상가변영회 회원 강원도 철원지역으로 벤치마킹 다녀와

6월30일 소이산 모노레일과
철원 동송 전통시장 둘러봐

구봉도상가변영회(회장 김학운) 회원 24명이 6월 30일 강원도 철원지역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7시, 구봉도 제2공영주차장을 출발해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강행군이었다.

회원들의 연령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해 젊은 회원들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등을 밀어주면서 걷는 주상절리길을 무려 1시간 30분 동안 관람했다.

한탄강 물소리에 취해 비오듯 땀이 흐르면서 등을 적시고 얼굴에서도 땀이 뚝뚝 떨어지지만 가끔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과 한탄강 갈매소리에 힘든 것도 모두 다 사라지는 분위기다.

이어서 구봉도에 설치 예정인 모노레일을 살펴보기 위해 소이산 모노레일 역으로 이동했다.

모노레일은 8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편도 15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였다. 모노레일은 소이산 362m 정상 8부 능선쯤에서 내려가 되고 이내 약간 걸어서 소이산 정상에 오르게 된다.



구봉도상가변영회 회원 24명이 6월 30일 강원도 철원지역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 사진은 동송시장을 벤치마킹 하고 나온 회원들이 다함께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정상에서는 드넓은 철원평야가 눈앞에 펼쳐지고 멀리 백마고지와 DMZ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그 너머에 있는 북한의 선전마을도 안개사이로 어렴풋이 보였다.

오후 2시 점심식사를 시작, 오후 4시쯤 마친 회원들은 철원지역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위해 동송시장을 찾았다. 이날은 마침 5일장이어서 구경할 것도 많고 손님들도 제법 있었다.

회원들은 저마다 옥수수, 완두콩과 강낭콩 등 먹거리 및 식재료를 다양하게 구입한 뒤 오후 8시30분 대부도에 도착했다.

하루종일 힘들었던 강행군에 지친 몸을 달래주기 위해 저녁까지 함께하고 식사를 마치는 대로 회원들은 내일을 기약하며 각자 집으로, 일터로 해산했다.

이날 철원 벤치마킹을 마친 김학운

회장은 “구봉도상가변영회가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 기분이 좋다”면서 “어디가도 구봉도상인들이 앞서는 모습을 보게되는 것 같아 마음한구석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되는 구봉도상가변영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촉... 정책 제안·모니터링 역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위해 유공 표창 전수식도 진행

안산시는 3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표창 전수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6월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확산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무원, 민간기관 관계자, 시민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신규위원을 위촉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 자문,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도시환경, 일자리·돌봄, 안전·보건의 3개 분야로 구성해 분과별 세부 안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3일 안산시청 제1 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표창 전수식을 진행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위촉식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위촉 컨설턴트인 김선화 강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이해와 역할’을 주제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민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

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11년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양성평등 기반 조성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

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추진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물론, 도시 전반의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시-안산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안산 맞춤형 입시설명회’

12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라이언스홀에서 개최 48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박람회 대규모 진행

안산시는 오는 12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컨퍼런스홀과 라이언스홀에서 ‘2026학년도 안산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다변화하는 대입제도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주관하에 진행된다.

이번 입시설명회에는 ‘EBS 입시의 정석’ 고정 출연자인 조만기 강사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의 이해’ 특강이 열려 수험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

1:1 입시컨설팅에서는 지난 6월 사전 신청한 200명의 관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출했던 컨설팅 신청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 대입진학지도 리더 교사단이 성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이언스홀에서 1:1 입시컨설팅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대학박람회는 관내·외 인근지역 48개 대학이 참여한다. 별도의



안산시는 오는 12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컨퍼런스홀과 라이언스홀에서 ‘2026학년도 안산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사전 신청 절차 없이 행사장에 설치된 대학별 부스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대학 관계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대학별 전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입시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시에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인 준비”라며 “앞으로도 안산시가 교육도시로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市 ‘찾아가는 드론 체험실’ 11월까지 운영... 참가자 모집

안산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더 환영

안산시는 오는 7일부터 안산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드론 기술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드론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찾아가는 드론체험실’은 오는 8월 시작해 11월까지 운영된다. 이번에

펼쳐지는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8월 방학 기간 교육에서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론을 조종하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에서는 ▲미래직업군 소개 ▲드론 모의비행 ▲드론 축구 등의 활동으로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드론체험실’에서는 드론체험을 신청한

학교 8곳을 직접 찾아가는다. 과학·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사 교육과정 중 ▲드론의 원리 ▲안전교육 ▲조종 체험 등을 진행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8월 방학 기간 교육은 청소년(초등학교 3~6학년 대상) 교육과 가족 단위(초등학교 3~6학년을 포함한 2인 1팀)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소년 교육 3회와 가족 단위 교육 7회가 예정돼 있으며, 회차당 20명을 모집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모집은 오는 7일부터 안산시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청소년수련관(031-412-173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교육이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드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교육지원청, 2025 미래 교육을 완성하는 관리자 아카데미

(기본/심화) 실행중심 AI 교육 “미래 교육의 길, 관리자 리더십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서 관내 유·초·중·특수학교 관리자 100명을 대상으로 『2025 미래교육을 완성하는 관리자 연수: 실행중심 AI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안산마냥 ON-Grow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리자 리더십을 기반으로 디지털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실천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획된 직무연수이다. 한양대학교 ERICA 소프트웨어융합원과 협업하여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기본반(6.17.~18.)과 심화반(7.1.~2.)으로 나누어 각 6시간씩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행 중심 리더십을 위한 심화된 연

수 설계기본반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윤리, 하이러닝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수업 설계와 교육과정 운영 전략을 다루었으며, 관리자 리더십의 실천적 역할 탐색에 중점을 두었다.

심화반은 학교 경영과 행정에 AI 및 데이터 기반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자동화, 공문 작성, 디지털 소통 전략 등 실무 중심의 내용과 함께 조직문화 조성, 갈등 해결 등 복합적인 리더십 상황에 대한 실행 전략도 함께 제시되었다.

연수 참여자들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익힐 수 있어 만족스러웠고, 디지털 기반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연수 내용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할 실행 전략을 구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서 관내 유·초·중·특수학교 관리자 100명을 대상으로 『2025 미래교육을 완성하는 관리자 연수: 실행중심 AI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태창 기자

김수진 교육장은 “AI와 에듀테크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는 질문”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안산의 관리자들이 ‘아는 것’을 넘어 ‘활용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학교가 미래교육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마냥 ON 2.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실천 중심의 디지털 리더십 연수를 지속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 기반한 실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대 재난안전교육센터 레저스포츠케어학과 일반응급처치 교육 진행

모든 학생 전과정 100% 수료

안산대학교 재난안전교육센터(센터장 기은영)는 지난 6월 18일 레저스포츠케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응급처치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야외 활동과 스포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재학생들의 실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됐다.

레저스포츠케어학과는 운동처방, 스포츠재활, 건강관리 등과 밀접한 전공 특성상,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서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우는 몰입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출혈 및 상처 처치 ▲염좌와 골절 응급처치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법 ▲심정지 상황 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CPR)

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실생활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응급처치 기술을 포함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실습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의 현장 대응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전문강사진의 지도 아래 모든 학생이 교육의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100% 수료하는 성과를 이뤘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론만 배웠을 때는 막연했지만, 실습을 통해 직접 응급처치를 해보니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 야외 활동이나 실습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대 재난안전교육센터 기은영 센터장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전의식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태창 기자

고잔고등학교(교장 박상구)가 과학·수학 명장제 프로그램중 하나인 미래과학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정보 관련 전공심화 교육 및 체험 활동 강화를 통한 학생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고잔고 과학·수학 명장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이번 전공 적합 프로그램은 7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되

고잔고, 미래 사회를 견인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돌입’

며, 과학 및 수학, 정보에 관심 있는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학, 화학, 생명과학, 정보를 주제로 학생 주도 심화 탐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공학 분야는 ‘휘트스톤 브릿지를 이용한 미지 저항 측정’을 주제로 운영

된다. 직류 브릿지 회로를 학생들이 직접 구성하고, 휘트스톤 브릿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 회로도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화학 분야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를 이용한 에너지 음료속 카페인 함

량 분석 및 적외선 분광기(FT-IR)를 이용한 유기합성물질 성분 분석하기’를 주제로 운영된다. 에너지 음료속 카페인을 학생들이 직접 추출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 적외선 분광기의 원리에 대해 학습하며,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학생들이 직접 합성

한 유기합성 물질을 분광학적 지식을 이용해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생명과학 ‘광합성 색소의 개별 분리 및 흡광도 측정을 통한 흡수 스펙트럼 구현’을 주제로 운영된다. 광합성 색소를 TLC판과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하여 분

리하고, 분리색소의 개별 용출 및 색소 샘플을 직접 제작하고, 개별 색소의 흡광도 측정 및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보 분야는 ‘디지털 논리 회로 탐구하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논리 연산과 논리 게이트에 대해 학생들이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논리 회로도를 구성하고 실험 회로를 구현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윤성용 기자

축하, 홍보, 급매 광고 전문
생일, 결혼, 승진, 축하 광고.
상호, 제품, 행사, 영업 홍보.
급하다! 지금팔자! 부동산 급매물

대부도저널 광고국장
김선중 M: 010.3199.4992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카랑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01-1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아티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김관중 M: 010.9080.1195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용담바다낚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낚시터

등대바다낚시터
이한중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K3 바다낚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서해부동산
박현배 M. 010.8810.3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지런이길 61-8(대부남동)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선재낚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토야프렌즈
조기열 M. 010.9436.9055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03번길12, 1동 401호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웅진군, 2025년 군소음 대책사업 추진... 보상돌입

올해 파악 내년 지급계획

웅진군은 2025년도 군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 기지 주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사격의 소음 및 군 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군 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어 2020년 시행됨에 따라, 매년 전년도에 군 소음 일수 및 보상대상자를 파악하여 다음 해에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보상 대상자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거주지역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군은 2024년에는 204명에 대해 1,954만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에는 2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총 203명 중 191명이 심사 및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군은 이들에 대해 오는 8월 중 1,7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크기(dB) 및 종류별로 1종에서 3종으로 구분되며 소음보상금은 소음발생 일수를 고려하여 1종(월별 6만원), 2종(월별 4만 5천원), 3종(3만원)으로 차등 보상된다.

군 관계자는 “군 기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거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은 군 기지 주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군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 해수욕장·해변 22곳 순차적 개장

웅진군은 오는 7월 5일부터 관내 해수욕장 및 해변 22곳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각 면별로 상이하며 북도면(7.14~ 8.22), 연평면(7.20~ 8.19.), 백령면(7.18~ 8.17), 대청면(7.15~ 8.15.), 덕적면(7.21~ 8.17.), 자월면(7.25~ 8.20.), 영흥면(7. 5~ 8.24.)이다.

웅진군은 올여름 이른 무더위와 인천·바다페스티벌 시행으로 인해 관광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해수욕장 및 해변에 수상안전 요원 63명을 배치하고 관광종합상황실 운영 및 경찰·해양경찰·소방과 연계해 비상안전체계를 구축하여 피서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977년 국민관광지로 선정된 덕적면 서포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인어 전설의 장봉도 웅암해수욕장, 일몰로 유명한 장경리 해수욕장 등 웅진군의 해수욕장들은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섬지역 해수욕장만의 청정한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어 평화롭고 느긋한 휴가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또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에서 “주섬주섬 음악회”가 열려 관광객들에게 여름밤의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경복 웅진군수는“이른 무더위와 인천·바다페스티벌 시행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웅진군을 찾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 장봉도 갯벌·습지보호구역에 종묘(바지락)방류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및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

웅진군은 6월 30일 및 7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장봉도 갯벌·습지보호구역에 바지락 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웅진군은 해양보호구역 사업으로 수산자원 증식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와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약 4천4백만원의 예산(국비 70%, 시비 15%, 군비 15%)으로 바지락 크기 2~3cm 크기의 종자를 매입해 13,680kg를 장봉어촌계 면허 어장지역(사염 및 아염 지선)에 방류했다.

바지락은 성장과 번식이 빠르고, 이동이 거의 없어 양식이 용이한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자 한국인들이 자주 소비하는 대표적인 수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이번 바지락



웅진군은 6월 30일 및 7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장봉도 갯벌·습지보호구역에 바지락 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했다.

윤성용 기자

방류가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장봉도 어촌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이작도 및 장봉도의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원 운영 등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군의 해양생태계 보존에 힘을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웅진군은 오는 7월 5일부터 관내 해수욕장 및 해변 22곳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영흥도의 심리포해수욕장이다.

김태창 기자

연평면 피서철 맞아 “임도주변 및 대나루 해안가”대청소

웅진군 연평면(면장 황준철)은 1일, 본격적인 여름 관광시즌을 앞두고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임도 주변 및 대나루 해안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관광객들

의 접근이 많은 관내 임도지역과 대나루 해안가에서 면 직원들과 지역주민 및 관내 유관단체, 해병대 연평부대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해 주변에 쌓인 방치 폐기물, 페그몰, 스티로폼, 밧줄, 등 약 10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윤성용 기자



양지개발 토지컨설팅사무소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대표 김 상 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방조제길 113)

정윤경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년 민관협력 성과 격려

‘지역대회’에 참석해 강조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 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월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하고, 민관협력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지역대회는 경기도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되짚고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 동안 민과 관이 함께 손잡고 이웃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며, 촘촘하고 든든한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온 노력은 지역공동체의 자산이자 자긍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이웃을 보살피 온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대표해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특히 협의체 활성화에 힘써온 15명에게는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복지 사각지대의 다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더 촘촘한 민관협력과 주민 주도의 복지 생태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책을 제안하고 복지를 실행해 나가는 복지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경기도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특강과 축하공연, 개회식과 유공자 표창, 비전선포식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민관이 함께 걸어온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비전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7월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했다.

전문가 칼럼

수상태양광,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 지역 갈등의 불씨인가 (상)



김시경
대부도협동조합 전무이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 중 하나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와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확대 없이는 그 목표에 다가설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NIMBY의 벽’에 부딪힌다. 그 배경엔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복잡한 토지 소유 구조가 있다.

산지나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개발 제한, 산림 훼손, 농지 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주민 반대는 극심해진다. 바로 이 틈새에서 떠오른 것이 *수상태양광*이다.

말 그대로 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띄우는 방식으로, 활용도가 낮은 유휴 수면 공간을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상태양광의 장점은 분명하다. 첫째, 토지 훼손 없이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역 간 토지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기존 댐이나 저수지와 같은 인공수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도 뛰어나다.

둘째, 수면 위는 온도 변화가 육상보다 완만해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패널이 수면을 가리면서 증발량을 줄여 수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셋째, 분산형 발전의 특성상 송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역 내 소비와 연결된다면 RE100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듯 기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상태양광은 문서 위에서는 이상적인 해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들어서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수면에 패널이 설치되는 순간, 어민들은 어업권 침해를 우려하고, 지역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수질 오염을 걱정한다.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다. 태양광 모듈이 조류의 일조량을 가리면 서식지가 바뀔 수 있고, 물 위에 설치된 부유체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생태계 변화 우려로 수상태양광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반면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이거나 지역 제한적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경기도,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 무단증축 등 163건 적발

도-시군 31개 전 시군 대상 대대적 합동조사 실시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82건)

과 미신고 가설건축물(48건)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이외 조정 및 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용도변경 등도 있었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위반건축물의 위험성과 필요 조치를 알리면서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도 실

시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해병대 신입대원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휘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안전 안산 히어로의 등장... 안산시 '온(On)-안산 릴레이 캠페인' 시동



이민근 안산시장(왼쪽 세번째)이 2일 해솔초등학교 앞에서 히어로 복장을 한 안전 자킴이들과 어린이들의 등곳길을 함께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민근 시장이 직접 등곳길 안전지킴이로 나서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안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적녹잔여 시간 표시기 등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온(On)-안산 릴레이 캠페인'에 시동을 걸었다.

안산시는 2일 오전 상록구 소재 해솔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온(On)-안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상록구청, 안산상록경찰서(서장 구슬환), 안산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 상록 녹색어머니회, 안산시 로보캡순찰대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등곳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나누어주며 ▲일단 멈추기 ▲신호 지키기 ▲스마트폰 안하기 등 보행 안전 수칙

온(On)-안산 릴레이 캠페인, 시민 운동으로 확산... 안전의식 제고에 방점 市,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잔여 시간 표시기 등 시설개선 사업 병행 추진 이민근 시장“시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 통해 안전 문화 선진도시 구축”

을 전파했다. 아울러, 학부모와 운전자들에게는 피켓 등을 활용해 ▲스쿨존 일단 정지 ▲스쿨존 속도 준수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 등의 사항을 주력 홍보했다.

■ 안산 히어로 등장에 관심↑... 눈높이 맞춘 캠페인 전개

안산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 안산 히어로'라는 참신한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과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히어로 복장을 직접 입고 등곳길 안전 자킴이로 활동

하며,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자들에게도 스쿨존 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민근 시장은 “히어로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두라고 생각한다”라며, “안산시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제로화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상록녹색어머니회 소속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등곳길에서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장님과 경찰, 교육청, 시민 모

두가 함께 나서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한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안산시는 호동초, 석수초, 별망초 등을 포함해 관내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LED 바닥 신호등, 미끄럼 방지포장, 활주로형 표지봉, 적녹잔여 시간 표시기 등 첨단 스쿨존 안전시설을 설치해 통학로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한다.

■ 스쿨존 안전은 시작, '온-안산 릴레이 캠페인'으로 확장

안산시는 이번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단순한 홍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릴레이형 참여 캠페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On)-안산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공공기관, 기업, 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각 기관 및 개인이 캠페인 인증샷을 소셜미디어(SNS)에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참여형 시민 운동이다.

소셜미디어 업로드 캠페인은 이민근 시장을 첫 시작으로 안산시 시의원, 교육지원청장 등 주요 기관장으

로 확대되고, 관내 기업, 각종 단체, 학교, 학부모와 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스쿨존 안전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스쿨존 안전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도시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연속성 있는 정책 시리즈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온(On)-안산 릴레이 캠페인'과 스쿨존 안전 협의회 구성, 안전 인프라 시설개선 사업 등에 걸쳐 단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안산형 스쿨존 캠페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안전 캠페인과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문화 선진도시'를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민근 안산시장(왼쪽 두번째)이 2일 해솔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녹색어머니회,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온(On)-안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왼쪽 세번째)이 2일 해솔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맨 앞줄 가운데)이 2일 해솔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13회] 나그네새가 오가는 섬마을 대부도 람사르습지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철새의 낙원 대부도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에 등재된 곳이다.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원래 협약 제정 방향은 서식지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물새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특성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물새의 중요한 서식지인 습지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확대·정비되었다. 습지(Wetlands)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습윤(濕潤)한 상태를 유지하는 장소로 간조 시 수심 6m를 넘지 않는 곳으로 대부도 주변 갯벌은 대부분 여기에 속하여 철새가 많이 찾아온다.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에 나오는 철새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여름철새(Summer Visitor)

로 겨울에 아열대지역에서 월동하다가 봄에 한국으로 와 번식한 후 가을에 되돌아가는 제비, 꾀꼬리, 뺨꾸기, 백로류, 물총새 등이 있다.

둘째는 겨울철새(Winter Visitor)로 여름에는 시베리아나 만주 등에서 번식하다 겨울에 찾아오는 두루미류, 기러기류, 고니류, 오리류, 물닭 등이 있다.

셋째는 나그네새(Passage Visitor)로 번식은 고위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월동은 저위도 지역에서 보내는 철새로 봄과 가을 2번에 걸쳐 우리나라를 지나는 알락꼬리마도요, 중부리도요 같은 도요물떼새류, 벌매, 비둘기조롱이, 노랑눈썹새, 제비딱새, 긴발톱할미새, 붉은가슴발종다리 등이 있다.

대남초등학교 주변의 넓은 갯벌, 산과 들, 간척지에 게 종류, 갯지렁이, 물고기, 풀벌레, 개구리 등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철새가 많이 찾아온다. 2008년 3월 한국습지보전연합(Wetlands Korea), 일본람사르센터(Ramsar Center Japan), 중국국제습지연합(Wetlands International China)로부터 습지보전시범학교(The Model School Wetland Conservation) 지정을 받았다. 아시아 3개국이 습지시범학교로 지정한 학교는 대남초등학교가 유일하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안산시와 서울대학교가 후원하고 한·중·일 습지보전연합이 주관하는 한국의 안산, 일본의 니가타, 나카우미 & 신지코, 중국의 난창, 말레이시아의 보르네



세계적인 철새의 천국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2008년 습지보전시범학교 지정 현판식에 참석한 한국습지연합 이우신 서울대 교수, 람사르재팬 및 중국국제습지연합 관계자

오섬 등 한·중·일 청소년습지교환프로그램 및 아시아청소년습지보호대회에 학생이 참가하여 습지보호를 통한 국위선양에 힘썼다.

그 후 대부도 갯벌은 2017년 3월 해양수산부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2018년 10월 람사르습지 등재, 2019년 7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네트워크(EAAF)에 등재되었다. 「섬마을 선생님」 노래 가사의 '철새 따라 찾아온~총각 선생님'에서 철새의 중요한 도래지와 이동경로로 대부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중심이 학교 앞 고갯부리 람사르습지인 것으로 이 노래의 배경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데스크 칼럼

대부도 갯벌사고 줄여야 한다



김태창
편집국장

안산소방서는 최근 3년간 대부도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59건 가운데 40.6%(24건)가 갯벌고립사고로 나타났다. 대부도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 중 약 40%가 '갯벌 고립'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안전 문제다. 갯벌은 관광객과 낚시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지만, 물때(조석 시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비 부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바다를 찾고 갯벌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다. 더 이상 대부도 갯벌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방법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도 갯벌 고립,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안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대부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힐링 명소다. 특히 서해안 특유의 광활한 갯벌은 가족 단위 체험객과 낚시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면에는 매년 반복되는 갯벌 고립 사고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관광객이 조수간만의 차를 예측하지 못하고 갯벌에 고립되면서 119나 해경의 구조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여름철이면 뉴스에 한두 번씩 보도되는 이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당국의 부담, 구조 지연으로 인한 인명 피해, 지역 이미지 훼손까지도 뒤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해결책은 무엇일까?

첫째, 정보 전달이 생명이다. 갯벌에서의 안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물때를 알 수 없다면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 현장에는 물때 표지판이 있지만, 방문객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거나 읽지 않는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조석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이나 모바일 알림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관광객이 갯벌에 들어서기 전, '퇴로'까지 남은 시간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다.

둘째, 안전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사고가 반복되는 특정 지점에는 비상 구조함, 경고 표지판, CCTV, 드론 감시 시스템 같은 물리적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 교육과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하다. 사고 예방은 시설만으로 되지 않는다. 교육과 문화 형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을 갯벌 안전 가이드로 고용하고, 체험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안전 브리핑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넷째, 기술과 제도의 접목이 필요하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고립 예측 시스템, 갯벌 전용 내비게이션 앱, 물때 알림 푸시 메시지 등은 지금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출입 시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도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갯벌 고립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고된 사고'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관리할 시스템과 기술도 있다. 결국 남은 것은 의지와 실행력이다. 대부도의 아름다운 갯벌이 더 이상 위험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이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광과 안전이 공존하는 섬,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고를 그것이 진짜 대부도의 미래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5년 경력 간판 제작 설치 전문업체

Led채널. 특수제작간판. 썬팅. 현수막. 명함. 판촉물



mi-re
enterprise

미레기획

대표 이 병 철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3(대부북동) ☎ 010.9366.9699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감성과 수익이 흐르는 부지
대부도 말부흥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